

‘1만원 이하 83%’…소액구매가 대세

(경륜)

온라인 회원 약 2만5000명 돌파
모바일앱 통한 구매가 95% 차지
청소년 차단·1인 1기기 등 갖춰

경륜 경정 온라인 발매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현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은 2만5000여 명이다. 하루 평균 630명 정도가 가입한 셈이다.

온라인을 통한 경주권 구매 경로는 모바일이 95%, PC가 5%로 모바일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총 온라인 발매건수 중 구매금액이 1만 원 이하는 경륜이 83.4%, 경정이 85.8%로 대부분 소액구매 성

향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발매를 실시하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실명제, 구매한도액 축소, 회원가입 시 건전화를 위한 규제 장치 등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륜 경정의 온라인 발매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보안기술을 강화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소년 접근 차단, 본인기기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1인 1기기 사용, 중복로그인 방지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경륜 경정 경주권 구매는 모바일 앱(스피드온, Speed-On) 또

는 온라인 포털(www.speedon.or.kr) 회원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스피드온 앱을 다운받아 건전이용 서약서에 동의하고 건전구매지킴이에 자신의 성향, 게임물 입도, 기간별 자기한도 설정 등을 한 후 게임중독 예방교육을 시청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스피드온에 가입하면 경륜 경정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시 1000원,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시 2000원, 은행 계좌정보 연동 시 5000원의 마일리지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경륜 경정 온라인 경주권 구매하는도

1경주 당 5만 원(오프라인의 경우 10만 원)까지이고 해당 경주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은 경주가 끝나고 순위가 확정되면 공개한다. 이는 경주영상이 불법도박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의 발매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건전하게 경륜 경정을 즐기기 위해 온라인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건전화 예방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정 선수들이 플라잉스타트로 출발선을 통과 중입니다. 플라잉 위반을 한 선수는 출전 금지 및 벌점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 플라잉 위반 경계령

0초보다 먼저 스타트 라인 통과 시 제재

30회차 수요일 경주서 무려 6명이나 위반

미사리 경정장에 플라잉(F, 사전출발) 경계령이 내려졌다. 8월 25일 열린 30회차 수요일 경주에서 무려 6명의 선수가 플라잉 위반을 했다. 특히 수요일 2경주에서는 김도휘, 정주현, 이재학, 강영길 등 네 명이 위반을 해 단승식을 제외한 모든 승식이 환불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경정 경주의 정상적인 스타트는 대기 행동 상태에서 0~1.0초 안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 하는데 플라잉 스타트는 0초보다 먼저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플라잉 위반을 한 선수와 관련된 모든 경주권 구매금액은 환불되고 선수에게는 위반에 대한 제재(출전 금지, 벌점, 유예기간)가 주어진다.

그렇다고 플라잉 위반이 무서워 스타트 승부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몇몇 스타트급 강자와 신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기량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 상태이고, 경주거리가 두 바퀴(1200m)로 고정되면서 순위 역전을 노릴 기회도 줄었다. 초반부터 승기를 잡기 위해 더욱 스타트 승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더기 플라잉 사고가 나오면서 경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30회차 대량 플라잉 사태 이후 31회차에서 선수들의 스타트 편차가 유독 심했는데, 평소 스타트 승부에 자신이 없거나 플라잉 유예기간이 남은 선수들이 적극적인 스타트 승부를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날씨에 따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을로 접어들며 전반적으로 수온이 낮아져 여름에 비해 경주 스피드가 다소 올라간 상태다. 계절이 막 바뀌는 시점에서는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스타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선수들의 스타트 컨디션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스타트 컨디션은 훈련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일반인들이 훈련을 참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배팅 전 경정 홈페이지나 관련 가이드 등을 통해 훈련 상태를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김관희·정해민 깜짝승…경륜 ‘특선 2진’의 반란

김희준도 SS반 신은섭 제치고 우승
존재감 낮아진 강자들…세대교체론
3~4년차 이상 90년대생 선수 주목

경륜에서 특선급 경주는 우승후보를 중심으로 2위 선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팬들이 비교적 쉽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요즘은 2위 다툼을 벌이는 선수들의 기량차도 크지 않은 데다, 이들이 강력한 우승후보인 간판급 선수들을 따돌리는 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선 2진급’으로 불리는 선수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8월 22일(광명 34회 3일차) 일요일 특선 결승에서는 그동안 ‘만년 도전세력’으로 꼽히던 김관희가 한 바퀴 선행으로 나서 우승후보 황인혁, 정하늘을 따돌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쌍승식 96배가 발생했다.

2019년 7월 낙차로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은 큰 부상(고관절골절)을 당했던 김관희는 이후 예정된 결혼까지 미루면서 재할

과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 재기에 성공했다. 이날 경주에서 자신의 톨로벨이라 할 수 있는 같은 세종팀 황인혁을 꺾어 더 화제를 모았다. 경기 후 김관희는 “너무 갑작스럽다. 최근 지구력을 보완해 뒀심이 붙은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김관희에 이어 그 다음 주에는 정해민과 김희준이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광명 5경주에 출전한 정해민은 SS반 진입을 앞둔 황승호를 따라가다가 가법계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벌어진 6경주에서는 김희준이 역시 SS반인 신은섭을 반바퀴 이단 짓히기로 제압했다.

김희준은 팬들 사이에서 ‘경륜 변방’으로 불리는 금정팀 소속이다. 출전 경주 대부분 연대세력이 없는 열악한 대진표의 연속이었기에 이날의 값진 승리는 경기 후에도 팬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임채빈이 가세하면서 기존의 경륜 판도를 바꾼 것에 원인이 있다”고 꼽았다. ‘괴물신인’ 임채빈이 기존 대세 정종진과 투톱 체제를 형성하면서 과거 대우받던 기존 강자들의 존재



최근 경륜 경주에서 특선급 선수들이 우승후보를 따돌리는 등 이변이 속출 중이다. 사진은 광명스피드에서 특선급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이 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제 “임채빈, 정종진이 아니라면 해볼만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경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선수들에게 매 경기 성적과 상금의 의미가 이전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그만큼 순위욕심이 커지고 절실했다.

마지막으로 세대교체론도 변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경륜계를 주름잡던 1987년생들의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운동선수로는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연령이다. 반대로 1990년

대 생들은 이제 기량이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 대부분 호쾌한 자력승부를 선호해 앞으로 이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제 특선에서 믿을만한 선수는 임채빈, 정종진 뿐”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창현 최강경륜 발행인은 “철옹성과도 같은 SS반도 이제 서열 정리가 되면서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고, 그동안 2차에 만족하던 선수들이 호시탐탐 넘보고 있다”며 “데뷔 3~4년차 이상인 90년대생, 특히 자력 승부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815 경축 양양 국제사이클 대회'에 참가한 임채빈(왼쪽에서 첫 번째)이 선수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프린트)

임채빈 200m 한국신기록
양양국제사이클…정종진 경륜 우승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가 지원하는 KSPO 프로경륜 트랙팀이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강원 양

양군 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815 경축 양양 국제사이클 대회'에서 우승과 함께 한국신기록까지 수립했다.

이 대회에서 임채빈은 200m 스프린트 종목 예선에서 한국신기록(9.714초)을 세웠다. 2018년 일본 트랙컵에서 자신이 세운 9.829초의 한국 신기록을 2년 만에 0.115

초 앞당겼다. 정종진은 경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KSPO 프로경륜 트랙팀은 현역 선수 8명, 지도자 1명, 메카닉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에는 정종진(20기), 임채빈(25기) 2명이 트랙종목 개인전 대표로 출전했다.

이수진 기자

코로나 19 지속적인 불황에 장사가 안되시면

전통의 맛
가마솥
진국
곤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가맹점
취급점

모집 1588-3892

잘되는 국밥집으로 간편한 바뀔 성공하세요

테이블 8개로 120만원 매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500만원 지원!!

250만원으로 쉽게

OPEN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밥 브랜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가맹 / 취급 500호점 OPEN 지원 혜택

홍보를, SNS, 블로그, 각종 홍보 지원

9월 오픈예정점
안양 호계점
가평읍내점, 김천 어모점
시흥배곧점, 영천 화룡점